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과 핵심 아이디어의 의미 및 서술 방안 고찰

A Study on the Meaning and Description of Core Concept and Central Ideas in Music Curriculum

정윤정*

Yoon Jeong Jung

초록 본 연구는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과 차기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의 ‘핵심 아이디어’의 의미를 고찰하고 교육과정 문서에서의 서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핵심 개념과 핵심 아이디어의 관련 용어인 ‘일반화된 지식’과 ‘빅 아이디어’의 의미를 고찰하고, 미래 음악과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차기 교육과정에서도 소수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학습량 적정화와 학습의 질 개선이 개정 방향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개념’ 및 ‘핵심 아이디어’가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이해하여 할 교과와 본질 및 원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해외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 살펴보고, 도출된 시사점으로 우리나라 미래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의 서술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탐색과 제언들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주요 용어들이 의미하는 본래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음악과 교육과정,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빅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core concept' of the current music curriculum, and the 'central idea' of the next music curriculum draft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narrative in curriculum document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generalized knowledge' and 'the meaning of big ideas', which are terms related to core concepts and central ideas, and discussed implications for future music and curriculum. This study emphasizes that 'core concepts' and 'big ideas' mean the essence of the subject that students will ultimately understand. The big ideas of the Canadian BC curriculum and the central idea of IB PYP curriculum were reviewed, and the direction of description of Korea's future music curriculum was also discussed with the derived implications. Based on these explorations and sugges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educational goals of the curriculum will be well understood and applied in the field.

Key words: music curriculum, core concept, generalized knowledge, big idea, central id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jj5294@gmail.com

Instructor,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I. 서론

어떤 현상이든, 이론이든, 개념이든, 그 내포된 의미를 안다는 것, ‘왜’라는 질문을 통해, 그러한 현상과 원리가 나타난 배경을 탐색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 특정 개념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데 가치가 있다. 이는 그것의 본래의 의미와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서 정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문서로 만드는 연구진은 현장의 여러 측면을 고려한다. 물론, 그 정도에 있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연구진이 기대하는 것에는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 연구진이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그 기저를 이룬 철학적·사회적·교육학적 배경들과 현장에서 이를 구현할 때 생기는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그 교육과정의 특정 내용 및 체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나 원리, 그리고 그것이 내포한 본래의 취지를 재고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현장에서의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바른 이해를 요구하기 전에, 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서의 적절한 서술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음악과의 2022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었다. 계속해서 수정·보완되겠지만, 이 시점에 2015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개념 및 원리 등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교육과정이라 할지라도,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전 교육과정들을 바탕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기 교육과정에서도 그 담론이 이어지고 있고, 2015 교육과정에 새롭게 등장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제한적이었던 ‘핵심 개념’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 개념’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국어, 사회, 미술 등의 다른 교과와 관련된 연구(Ryu, 2020b; Chang, 2020; Chung, 2016; Cheon, 2017)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것이 그 의미의 모호함이다. 각 교과마다 다르게 해석하거나, 한 교과안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뚜렷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고찰들이 있었다. 음악과의 경우, 각론의 ‘핵심 개념’ 및 관련 용어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핵심 개념’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고려할 때 음악과의 2015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최근 발표된 2022 음악과 교육과정의 시안의 ‘핵심 아이디어’가 ‘핵심 개념’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한다.

문헌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 그리고 ‘핵심 개념’을 혼용되기도 하는

데 ‘핵심 아이디어’는 영역 내의 ‘빅 아이디어’로서, 이들은 사실 엄밀하게 경계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혼란을 막기 위해 본 연구의 이하부터는 2022 음악과 교육과정의 시안에서는 ‘핵심 아이디어’, 2015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에 관한 서술일 때는 ‘빅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문헌과 교과에서의 표현을 고려하고자 한다.

2022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 등장한 ‘핵심 아이디어’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 미래 음악 교수·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과 2022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 제시된 ‘핵심 아이디어’의 의미 및 서술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두 개념에 대해 문헌 및 국내 타 교과와 해외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논의 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국내 음악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천착해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가 현행 및 차기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이러한 주요 개념들의 본래 취지가 바르게 이해되고,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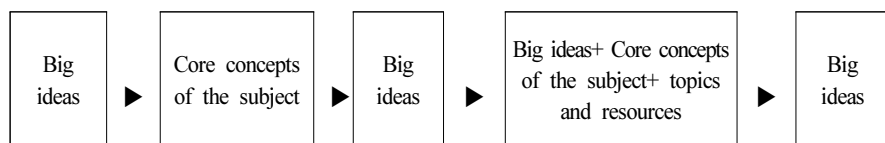
1. 핵심 개념의 의미

2015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내용 체계표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있다<Table 1>. ‘일반화된 지식’이란 ‘핵심 개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학습자들이 이해해야 하는 ‘원리’를 말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7). 그렇다면,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 ‘핵심 개념’은 교과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아이디어이다. 이는 지식의 한 종류인 개념(concept)과는 다른 것으로, 교과가 기반을 두는 학문의 대표적인 개념을 말한다. 또한 ‘핵심 개념’은 교과의 성격을 드러내는 근본적인 아이디어로서, 빅 아이디어와 유사한 의미가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7; Yeom, 2016; Lee et al, 2017).

<Table 1> Items in the content of the 2015 Curriculum

Scope	Core concept	Generalized knowledge	Contents	Skill
-------	--------------	-----------------------	----------	-------

‘핵심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화된 지식’은 기존 교육과정의 과도한 학습량으로 인해 피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고, 나아가 학습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수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5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새롭게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는 각 교과에 녹아들면서 분명한 정의 혹은 개념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Ryu, 2021; Seo, 2017; Lee & Hong, 2017). 전술한 바와 같이 ‘핵심 개념’, ‘기초 개념’, ‘일반화된 지식’, ‘원리’가 서로의 설명에 들어가면서 그 의미가 중의적이거나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개념’이 ‘빅 아이디어’의 성격에서 출발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관련 문헌에서 ‘기초 개념’ 및 교과의 ‘소재 및 주제’의 의미를 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Kim, 2021)를 통해, 다시 빅 아이디어의 성격으로 종결지어지는 듯하다. 이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핵심 개념’의 본래 취지와 성격을 견고히 세우지 못한 채, [Figure 1]과 같이 빅 아이디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교과목의 핵심 개념 혹은 교과의 소재 정도의 수준으로 그 의미가 좁혀졌다가 최근 다시 빅 아이디어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여러 문헌을 통해 논의되면서 오히려, 여러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Figure 1] Meaning change of core concepts (Lee et al., 2017; Kim 2021, revised)

분명한 것은 2015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개념’은 교과를 통해 배우는 기초(basic)의 수준이 아니라 핵심(core)이라는 점이다(Ohn et al., 2018). 또한 ‘핵심 개념’ 안에 ‘빅 아이디어’의 의미가 있으며, 소수의 ‘핵심 개념’ 중심으로 학습량의 적정화와 학습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 교육과정의 취지를 기억해야 한다. 학습의 질 개선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조직하여 교과 세부 학습 내용들을 둘러싼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하고, 이러한 시도는 교과 내뿐만 아니라 교과 간의 연결성을 쉽게 하여, 다양한 교과를 통한 융합적 사고까지 끌어낼 수 있다(Ohn, 2015).

[Figure 1]의 4번째 상자에 제시된 ‘소재 및 주제(topics and resources)’는 Erickson(2007)의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도 포함된 용어이다. 교과목의 소재 및 주제란 ‘지식의 구조’의 가장 아래 위치하는 것으로서, 인물, 장소, 상황 등의 일종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예시와 같다. 이러한 소재와 주제들로부터 도출된 것을 ‘개념’이라고 할 때, 소재와 주제는

원리나 일반화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Figure 1]과 같이 ‘핵심 개념’이 ‘빅 아이디어’에서 소재와 주제의 나열까지 포함하며 그 의미가 확대 혹은 축소된 양상을 보아도, 각 교과나 현장에서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것이 예상된다.

‘핵심 개념’의 도입 취지와 바른 이해를 돕고자 김재홍 외(2021)에서는 ‘핵심 개념’을 재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서 ‘핵심 개념’이 일으킨 여러 혼란을 인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결론적으로 ‘핵심 개념’이 내포한 빅 아이디어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빅 아이디어’는 학문의 핵심으로 여러 개별적 지식과 기능들을 연결해 의미를 부여하며, 학습한 것들을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높은 전이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Kim et al., 2021).

2. ‘핵심 개념’의 이해를 위한 빅 아이디어 의미 고찰

이상에서 보았듯이 핵심 개념을 빅 아이디어와 분리해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빅 아이디어’가 교육학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지점에서 ‘빅 아이디어’의 의미를 고찰해봄으로 핵심 개념과 빅 아이디어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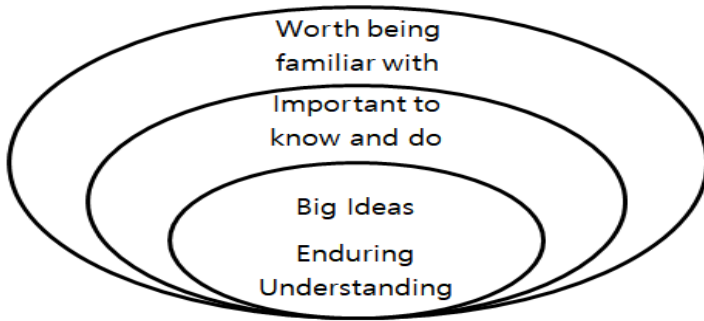
전술했듯이 ‘핵심 개념’은 ‘빅 아이디어’의 의미를 내포하며, ‘핵심 아이디어’는 교과 내 영역에서의 ‘빅 아이디어’로서 일반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룬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1b).

1998년에 처음 소개되어, 2005년에 개정된 McTighe와 Wiggins의 이해중심 교육과정(UbD, understanding by design)은 2015 교육과정의 설계의 바탕이 되었다. 이해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된 ‘빅 아이디어’는 ‘영속적 이해’(enduring understanding)로도 표현된다.

이해중심 교육과정과 ‘영속적 이해’에서의 ‘이해’는 영어의 apprehension이 아닌 comprehension을 말한다. Comprehension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다. 다시 말해, ‘영속적 이해’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상황과 맥락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의 내면화를 뜻한다. 시간이 지난 후에 교과목 낱말의 기초 개념이나 사실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학습자에게 내면화되어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이해’인 것이다. 위긴스와 맥타이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해란 구체적인 주제를 넘어서,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전이할 수 있는 주요 아이디어를 의미한다(Wiggins, McTighe, 2005a)

정리하자면, 빅 아이디어는 영속적이고 전이 가능성 큰 일반화된 아이디어로서 학습자의 삶의 다른 맥락에서도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교과목의 많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위긴스와 맥타이는 내용의 우선순위

를 다음과 같은 구조를 통해 설명한다[Figure 2].



[Figure 2] Clarifying contents priorities (Wiggins & McTighe, 2005)

[Figure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수·학습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빅 아이디어’, ‘영속적인 이해’이다. 두 번째 원의 알고 할 수 있어야 하는 ‘중요한 개념과 기능’은 영속적 이해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숙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교과목에 등장하는 낱말의 사실과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원 모두 ‘빅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위긴스와 맥타이(2005)가 소개한 ‘빅 아이디어’ 혹은 ‘영속적인 이해’의 한 예를 예술계열 과목에서 제시하면 “위대한 예술가들은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과 기법을 탈피한다” 이다.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핵심 개념’과 ‘빅 아이디어’는 소수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여,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습의 질을 개선하고자 제시된 개념이다.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일반화된 지식’은 각론과 각 교과목의 현장에서, 여러 의미로 변화해 왔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 개념’은 교과목의 기초 개념(basic)의 수준이 아닌 핵심(core) 원리라는 것이다. 더불어 위긴스와 맥타이어의 ‘빅 아이디어’가 2015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의 원리가 되면서, ‘핵심 개념’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었지만, ‘빅 아이디어’는 교과목의 원리를 일반화 한 것으로 전이성이 높으며, 학습자에게 영속적인 이해로 남아야 하는 개념이다.

차기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Park, 2022). 그렇다면, 음악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은 어떻게 진술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다. 이후, 최근 발표된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 등장한 핵심 아이디어에 고찰해보고자 한다.

Ⅲ.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과 핵심 아이디어

1. 2015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

음악과 교육과정문서에 대한 연구로 ‘역량’, ‘성취기준’, ‘음악 요소 개념 체계 표’(Kim, 2019; Kim, 2020; Yang, 2020)등에 관해서는 다소 진행되었지만 ‘핵심 개념’과 ‘핵심 아이디어’에 천착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소개된 용어이다.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에 대한 고찰은 최근, 발표된 차기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핵심 개념

2015 개정 교육과정 각론의 ‘일러두기’에서 ‘핵심 개념’은 ‘교과의 기초 개념이나 원리’라고 설명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7). 다소 간단한 설명으로 II장에서 논의한 ‘핵심 개념’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급이 전혀 구분 없이 같은 단어로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내용 체계에서는 표현, 감상, 생활화의 3개 영역별로 ‘핵심 개념’을 제시한다. 표현 영역에서는 ‘소리의 상호 작용’과 ‘음악의 표현 방법’, 감상 영역에서는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 ‘음악의 배경’, 생활화 영역에서는 ‘음악의 활용’과 ‘음악을 즐기는 태도’이다 <Table 2>.

<Table 2> Core concept by content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music curriculum

Area	Core concept
Expression	Interaction of sounds, ways of expressing music
Appreciation	Music elements and concepts, types of music, music background
Application	Use of music, attitude to enjoy music

Ministry of Education(2015b)

우선, 핵심 개념으로 나열된 7가지 요소가 과연 같은 층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리의 상호작용’은 다른 개념에 비해 다소 음악 교과의 특성 및 원리로 보이지만,

‘음악의 종류’나 ‘음악의 배경’은 보다 교과목의 구체적인 주제 혹은 소재 정도로 해석된다. 또한 ‘핵심 개념’을 영역별로 나누어 제시하였기에, 마치 ‘소리의 상호 작용’은 표현 영역에만 국한된 ‘핵심 개념’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또한, 표현 영역의 ‘음악의 표현 방법’은 학습할 내용에 더 가까워 보여, 음악 교과의 성격을 드러내는 핵심 원리나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감상 영역의 ‘음악 요소와 개념’은 음악 교과의 기초 개념의 성격이 더 강하기도 하고, ‘음악의 종류와 배경’은 교과목의 ‘소재 혹은 주제’로 간주하기 쉽다. 생활화 영역의 ‘음악의 활용’은 음악과의 목표에 더 부합해 보이며, 음악과의 ‘핵심 개념’이나 ‘원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정리하자면 음악과의 2015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은 음악교과의 소재, 주제, 혹은 목표와도 유사하게 서술되어 빅 아이디어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술 형태나 내용에 있어서 제시한 핵심 개념들이 학생들에게 영속적 이해로 남을 만한 음악 교과의 원리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2) 일반화된 지식

각론의 ‘일러두기’를 통해 ‘일반화된 지식’은 ‘학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설명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또한 총론에서 ‘일반화된 지식’이란 ‘핵심 개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학습자들이 이해해야 하는 ‘원리’라고 말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a).

내용 체계에서는 ‘핵심 개념’과 마찬가지로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에 따라 각각의 ‘일반화된 지식’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제시된 ‘일반화된 지식’이 ‘해야 할 활동’이거나, ‘성취해야 할 목표’를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일반화된 지식’의 본래 의미처럼 학습을 통해 이해해야 할 교과의 지식이나 교과의 기초 원리의 성격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Table 3>.

<Table 3> Generalized knowledge by content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music curriculum

Area	Generalized knowledge
Expression	Through various music experiences, students understand the interaction of sounds and how to express music, and express them in various ways such as singing, performing, making music, and expressing their body.
Appreciation	Listening to a variety of music, understanding and critiquing music by identifying elements and concepts, types and backgrounds of music.
Application	By using and enjoying music,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music to life

(Ministry of Education, 2015b)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igure 4]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일반화된 지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문법적 오류가 발견된다. 표현 영역에서 ‘노래, 연주, 음악 만들기, 신체 표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한다’에서 무엇을 표현하는지 그 대상이 없다. 둘째, ‘일반화된 지식’이 내포한 의미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예컨대, 감상 영역에서 제시된 ‘이해하고 비평한다’는 ‘지식’이 아니라 ‘학습 활동’ 혹은 ‘학습 목표’로 더 적합해 보인다. 생활화 영역의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갖는다.’는 음악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갖추길 바라는 태도이지, 알아야 할 지식이나 원리는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품고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수학, 과학, 사회와 같은 내용 중심 교과가 아닌, 언어와 예체능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의 특성으로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서술에 대해서도 성취기준과 같은 형태로 표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있다(Kim et al., 2021). 그러나 위긴스와 맥타이의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음악과에서도 ‘빅 아이디어’의 성격을 지닌 ‘일반화된 지식’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능에 함축되어 있는 기저 원리, 논거 혹은 전략들을 배우지 않는다면, 진정한 전문성을 개발하는 일은 최상의 수준에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혁신, 훌륭한 판단, 그리고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숙련되기 위해서는 단지 단서에 따라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움직임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것을 수행해 나갈 때, 그러한 원리에 관해서 자기 의식적으로 사고하지 않거나 그것들을 언어화하지 않더라도 작동하고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Wiggins & McTighe, 2005, p. 92)

같은 맥락에서 온정덕 외(2018, p. 71)도 ‘일반화된 지식’은 ‘영속적 이해’의 한 형태로서, ‘학습 목표’처럼 서술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교과의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능 중심 교과이든, 내용 중심 교과이든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다.

2. 2022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의 핵심 아이디어

최근 발표된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의 문서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60여 번, ‘빅 아이디어’는 4번 정도 서술되었다. 2015 교육과정 총론 문서와 그 기저에는 있었지만, 2015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두 개의 용어가 등장했다는 것으로 모종의 변화가 보인다. 2022 교육과정을 총론은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핵심 아이디어’는 영역을 관통하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과 다른 점은 ‘핵심 아이디어’는 더 포괄적이고, 영역을 아우르는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p. 35).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를 영역 수준의 ‘빅 아이디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두 개의 개념 모두 전이성이 높은 영속적인 이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과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의 표현을 종합해보면, ‘핵심 아이디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보다는 포괄적인 진술이지만, 빅 아이디어에 비하여는 영역 수준으로서 더 구체적 진술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이 이러한 흐름인 것은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빅 아이디어 중심의 교과 설계로 2015 교육과정에 이어 역량 함양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 음악과 시안에서는 교과 역량으로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공동체, 소통 역량을 선정하였고, 이 모든 역량에 공통된 요소 9가지를 추출하였다<Table 4>. 요소를 추출한 것은 요소들을 영역별로 묶어 궁극적으로는 해당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를 설정하기 위해서다.

<Table 4> 2022 Core competencies and core idea elements (Park, 2022)

Competency	Emotion	Creativity	Self-direction	Community	Communication
Core idea elements extract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competency	Convergence. medium, principle, value, context	Thinking, utilization, divergence/expression, medium, principle,	Thinking, media production/expression, utilization, context	Divergence/expression, medium, principle, value context	Medium, Value, Use, Context
	▼				
	Convergence, thinking, expression, divergence, medium, value, principle, context, use				

본 연구에서는 이 9가지 요소가 새로 구성된 음악과의 역량과 IB 교육과정에서

도출된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열외로 하고, 9가지 요소가 음악과의 핵심 아이디어 진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차기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9가지 요소가 교과목의 내용,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 진술문, 성취기준, 그리고 교수·학습·평가의 일관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설명한다(Park, 2022). 이 9가지 요소는 음악 교과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 요소를 통한 ‘핵심 아이디어’와 음악 교과의 영역별 요소를 통한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에 각각 분리되어 적용된다(Park, 2022, 16, revised). 공통요소는 ‘원리’, ‘맥락’, ‘활용’이며, ‘수용’, ‘가치’, ‘사고’, ‘산출’, ‘표현’, ‘매체’의 6개 요소는 각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이다. 앞으로 수정 및 보완 될 시안 형태임을 고려해야겠지만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와 그 요소는 다음과 같다<Table 5>.

<Table 5> Core idea elements and core idea statement directions (Park, 2022)

[Common] Element principle	Core idea
	Music is …… a characteristic/principle …….
[Appreciation] Principle+ value+convergence	Music is an auditory form of human feelings, emotions, experiences, and thoughts according to its own method and principle.
[Creation] Principle+thinking+divergence	Music is produced by exploring the infinite imagination and possibilities of humans according to its own method and principle.
[Performance] Principle+media+expression	Music expresses human feelings, emotions, experiences, and thoughts in harmony with various sounds according to its own methods and principles.

<Table 5>에서와 같이 공통 요소인 ‘원리’를 연주 영역의 핵심 요소인 ‘매체’와 ‘표현’에 엮으면 핵심 아이디어의 진술은 ‘음악은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 인간의 느낌, 정서, 경험, 생각 등을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로 구성된다(Park, 2022). 다시 설명하면, 음악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간의 정서를 표현한다는 일반화된 지식을 연주를 통해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연주, 창작, 감상 3개의 영역별로 핵심 아이디어 공통 요소인 ‘원리’, ‘맥락’, ‘활용’의 요소를 핵심 아이디어에 녹이게 되면, 총 9개의 핵심 아이디어가 생성되는 것이다. 시안에 제시된 9개의 핵심 아이디어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Table 6>.

<Table 6> Sample sentence of core idea (Park, 2022 revised)

Area	Elements	Core idea
Creation	Principle	• Music is produced by exploring the infinite imagination and possibilities of humans according to its own method and principle.
	Use	• Human beings compose music on their own initiative using various media in their daily lives.
Appreciation	Context	• Musical acceptance and response vary according to human sensibility and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Use	• Human beings discover and empathize with aesthetic values and meanings through various musical experiences in life.

위 시안을 기준으로 볼 때, 2015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이 영역별로 묶이면서 안고 있었던 문제는 해결된 것 같다. 표현, 감상 생활화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을 범 영역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문제로서, 마치 ‘표현’ 영역의 ‘소리의 상호 작용’은 감상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으로, ‘음악의 종류’와 ‘배경’은 감상 영역에서만 다루는 핵심 개념인 것처럼 제시되어 핵심 개념이 영역별로 너무 분절적이었다는 것이다. <Table 6>을 보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가 서로 너무 유사하다. 예를 들어, 연주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가 창작과 감상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 진술과 매우 유사하다. 마지막 동사인 ‘표현한 것이다. 구현한 것이다. 생산한 것이다.’가 유일하게 다르게 서술된 것인데, 표현, 구현, 생산의 의미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는 ‘음악 표현’이 ‘음악 산출’ 및 ‘음악의 수용과 반응’으로 바뀌었을 뿐 영역별 특수성이 드러난 아이디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활용’은 ‘원리’와 ‘맥락’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영역별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2022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과 내 영역 간 통합’ 혹은 ‘연계’를 말하고 있어서, 음악과의 핵심 아이디어가 이처럼 진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지만, 영역별 차이를 두고자 한다면 보다 뚜렷한 서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2022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가 2015교육과정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진술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성격의 문장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이에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이 학문의 핵심(core)가 아닌, 학문에서 다루는 소재나 주제(topic or theme) 수준에서 머물렀던 점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IV. 음악과의 핵심 아이디어의 서술 방향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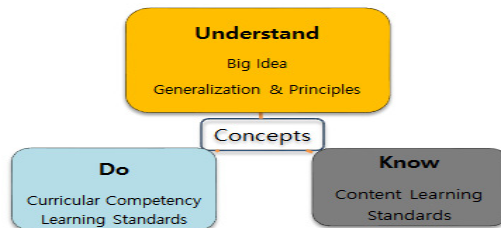
전술했듯이 차기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의 진술은 현행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의 본래 의도였던 빅 아이디어의 성격을 더 분명히 한 점은 진실보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해외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우리와 같이 ‘빅 아이디어’ 혹은 ‘핵심 아이디어’를 주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한 사례를 탐색하며, 차기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 서술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해외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 및 빅 아이디어

1) 캐나다 BC 주 음악과 교육과정

캐나다 BC 주의 교육과정은 ‘빅 아이디어’ 중심으로 설계하는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이나 미술과 교육의 연구에서 참고하는 교육과정 중 하나이기도 하다(Ohn, 2021; Ryu, 2020). 캐나다 BC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는 포괄적인 형태로 제시되며 우리나라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Rhu, 2020).

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모델의 3가지 요소는 알기-행하기-이해하기로 ‘빅 아이디어’는 바로 이해하기(Understand)와 연결된다[Figure 3].



[Figure 3] B.C Curriculum Model (B. C. Ministry of Education, 2019, revised)

캐나다 BC주의 음악 과목은 댄스, 연극, 시각예술과 함께 4개의 예술 교과중 하나이다. K-8 학년에서는 공통 예술 교과로, 9학년부터는 세분화된 교과로 나뉘게 되는데, 4개의 예술교과는 공통으로 교육과정 역량으로 ‘Exploring and Creating’, ‘Reasoning and reflecting’, ‘Communicating and documenting’, ‘Connecting and expanding’을 제시한다.

우리말로 탐색과 창조, 추론과 성찰, 소통과 기록화, 연결과 확장이다. 이와 같은 교육 과정 역량은 학습한 내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B.C. Ministry of Education, 2018). 또한 이 역량은 빅 아이디어 서술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Figure 3]에서와 같이 ‘빅 아이디어’는 교육 내용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일반화 혹은 원리이다. K-9 학년에 걸쳐 제시되는데, 한 학년에 4개씩 정리되지만, <Table 7>에서와 같이 4개의 빅 아이디어를 구분하는 상위영역이 없다.

<Table 7>의 상세내용은 차례대로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개인과 공동체로서 그들이 누구인지 표현하기 위해 예술을 창작한다’, ‘예술에 대한 참여는 목적 있는 놀이를 통해 탐구의 기회를 제공한다’, ‘춤, 드라마, 음악, 시각미술은 각각의 독특한 방법으로 의도를 표현한다’,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 타인과 관계 맺고 생각을 공유한다’.

<Table 7> Big idea in arts for grade 1

People create arts to express who they are as individuals and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ts creates opportunities for inquiry through purposeful play.	Dance, drama, music, and visual arts express meaning in unique ways.	People connect to others and share ideas through the arts.
--	---	--	--

(B.C. Ministry of Education, 2019)

4개의 빅 아이디어를 구분하는 상위 영역이 없지만, ‘개인의 정체성’, ‘예술 참여’, ‘예술 표현’, ‘연결 및 공유’라는 개념이 담겨 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예술교과의 공통 역량인 ‘탐색과 창조, 추론과 성찰, 소통과 기록화, 연결과 확장’이 빅 아이디어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K부터 9학년까지 한 맥락의 빅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보이며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 <Table 8>에서는 정체성이라는 개념 아래 학년에 따라 그 아이디어가 깊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학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표현하기 위해 예술을 창작한다.’로 시작하여 9학년에 이르면서 ‘정체성은 음악경험을 통해 탐색되고, 표현되고, 영향을 받는다.’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8> Big idea in music of B.C.

Gr.	Big ideas
1	People create art to express who they are as individuals and community.
2	Creative expression develops our unique identity and voice.
8	Individual and collective expression can be achieved through the arts.
9	Identity is explored, expressed, and impacted through music experiences.

(B.C. Ministry of Education, 2019, revised)

위와 같이 저학년에서 고학년에 이르면서, 지속적으로 Identity라는 단어를 제시하며 학생들은 음악이 자신이 누구인지 표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고, 음악이 정체성을 탐구하고 및 표현하는데 영향 받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연결되게 하였다.

2) 국제 바칼로레아 초등 음악 교육과정

국제 공인 초등교육과정인 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imary Years Program(IB PYP)의 음악 교과 역시 예술 교과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육과정은 중심 혹은 핵심 아이디어(central idea)으로 제시되는데, 핵심 아이디어가 6개의 초학문적 주제 아래 6개의 단위 별로 제시되며 이는 설정된다. <Table 9>는 하나의 예시로서 이 중 4개의 단위에 해당하는 1학년 대상의 4개의 초학문적 주제 아래 설정된 음악과의 핵심 아이디어이다.

<Table 9> Central idea of IB PYP for grade 1 in music (Wright, 2017, revised)

Unit	1	2	3	4
Trans-disciplinary	How we express ourselves	How the world works	Where we are in place and time	Who we are
Central Idea	Composers use melody, rhythm and timbre to depict ideas, feelings, nature or beliefs	Rhythm can be a machine with many layers and interlocking gears.	Original musical traditions use rhythm and pitch patterns to show life relationships.	A theme is a recurring idea that communicate messages like who, what, where and how.
Lines of Inquiry	What makes this music sound like an elephant/chicken etc?	There are many parts making up music.	Discovering Korean music	Instruments can be used to express our ideas/messages.

정체성을 빅 아이디어에 지속적으로 제시한 캐나다 BC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세상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우리는 어디에 언제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등의 정체성과 관련된 초학문적 주제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초학문적 주제를 다룸으로써, 타 교과와 영역 간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B PYP의 핵심 아이디어는 캐나다 BC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의 서술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드러나, 영역 특수성을 더 드러낸다. 가령 ‘작곡가가 자신의 느낌, 본성, 신념에 대해 표현하기 위해 리듬, 가락, 반복되는 주제를 사용한다.’는 핵심 아이디어가 그렇다.

또한, IB 교육과정의 특이점은 핵심 아이디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들로 작성된 탐구 목록(lines of inquiry)이 있다는 점이다.

2. 미래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 서술 방향 논의

이상에서 살펴본 캐나다 BC주와 IB PYP의 예술 혹은 음악과 핵심 아이디어의 구성 및 제시 형태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이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빅 아이디어’ 혹은 ‘핵심 아이디어’를 ‘영역’ 혹은 ‘특정 주제’로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캐나다 BC주에서는 각 학년 당 4개의 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각각의 빅 아이디어 위에 상위 영역이나 대 주제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상위 영역별로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전혀 규칙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빅 아이디어의 내용을 보면 학년 간 위계성과 연계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정체성, 공동체, 소통과 같은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영역별로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구성하다 보니, 특정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마치 다른 영역과는 무관한 것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소리의 상호 작용’과 그에 해당하는 ‘일반화된 지식’이 마치 ‘표현’ 영역에만 국한된 것 같은 모양을 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 아이디어를 진술 할 때, 영역에 대한 구분보다 역량과 연계하여 범 영역적으로 진술 한다면, 현장에서 교사가 해당 핵심 아이디어의 이해를 위해 각 영역을 위한 활동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가령, 감상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가 반드시 감상 영역에만 국한 되도록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만약, 영역의 경계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2015개정 교육과정이 가진 한계를 여전히 안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II장에서 2015 음악과 교육과정의 ‘일반화된 지식’이 ‘빅 아이디

어'의 성격을 갖지 못하고, 성취기준이나 학습 활동처럼 서술된 것을 지적하였다. 최근 발표된 2022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일반화된 지식'이 '핵심 아이디어'로 녹아들면서, 그러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원리, 맥락 활용이라는 '핵심 아이디어 요소'에 따라 제시한 '핵심 아이디어'들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캐나다 BC 교육과정의 경우, 학년 별로 제시되는 4개의 빅 아이디어가 각각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타인'으로 흘러가는 예술 활동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예술 활동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것은 교과목의 당위성에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원리, 맥락, 활용'이라는 요소 아래에서 '핵심 아이디어 진술'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2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의 핵심 아이디어 공통 요소 중 '원리'는 음악의 본질적 원리 및 특성을, '맥락'은 인간이 음악을 표현하는 상황을, '활용'에서는 음악을 통한 소통에 관한 것임은 알겠으나, 원리, 맥락, 활용이라는 3가지 요소가 같은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는지, 활용이라는 말 안에 맥락과 원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연주, 창작, 감상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 아이디어의 동사로서, '생산, 표현, 구현'은 표기는 다르지만 사실상 매우 유사한 의미로 보인다. 동사를 바꾼다고 해서 각 영역의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영역 구분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핵심 아이디어 진술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초학문적 주제 아래 빅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교과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B 교육과정의 가장 특별한 점은 6개의 초학문적 주제가 모든 교과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에서 '사회와 공동체'까지 아우르는 주제로 포괄적이며 학습의 목표가 개인 안에서 머물지 않도록 구성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반면, 초학문적 주제 아래 제시된 각각의 중심 아이디어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예컨대 개인 혹은 공동체의 정체성 표현을 담는 초학문적 주제 아래, 멜로디, 리듬 등의 매우 구체적인 요소에 관한 핵심 아이디어가 제시된다. 9가지의 핵심 아이디어 요소들을 엮어 서술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다 넓은 범위의 '빅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그에 해당하는 교과 내 영역 수준의 '핵심 아이디어'가 뒤따르는 형태도 고려해 볼 만하다.

넷째, IB 교육과정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핵심 아이디어에 도달하게 하는 '탐구 목록' 혹은 '핵심 질문'에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라는 초학문적 주제 아래, '작곡가는 자신의 신념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음색, 리듬, 멜로디 등의 다양한 음악 요소를 활용한다.'는 중심 아이디어에의 도달을 돕기 위해, '이 음악

의 어떤 특성이 코끼리를 표현 하는가'와 같은 탐구 질문을 제시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핵심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 영속적인 이해’가 학습자들이 최종적으로 이해하고, 오랜 시간 지녀야 할 교과와 본질적 아이디어라면, 그리고, 교육의 목표 중의 하나가 이러한 지식의 도달에 있다고 한다면, IB 교육과정의 제시된 여러 가지 교육학적 장치 가 목표 도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V. 나가며

본 연구는 차기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 현행 교육과정에서 그 의미와 역할이 불분명하여 혼란이 있었던 용어로서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의미 있는 이유는 차기 교육과정도 소수의 핵심 개념 혹은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습량의 적정화와 학습의 질 개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전술했듯이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영역 분절적인 형태를 취하였고, 특히 일반화된 지식은 음악교과의 특성이나 본질을 드러내는 영속적인 이해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서술 형태와 내용으로 인한 것인데, 마치, 성취기준 혹은 학습활동의 형태로 제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2015교육과정에서 강조한 ‘핵심 개념’을 교과 낱말의 사실, 기능, 기초 개념이 아닌, 이러한 단편적 지식들을 잊어버리더라도 학습자들이 이해해야 할 교과와 중심 아이디어라고 간주하였다.

최근 발표된 2022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이 품고 있던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의 한계들을 다소 해결했다고 본다. 우선 영역 분절적이지 않고, 영역을 관통하는 개념으로의 핵심 아이디어를 설정한 점, 명제적 진술로 표현한 점, 역량과의 관계를 고려한 점이 그러하다.

핵심 아이디어를 주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해외 교육과정의 사례와 문헌 고찰을 통한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문서의 체계화라는 명목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무리하게 상위 개념 혹은 영역별로 엮으려는 시도보다 오히려 학년에 따라 동일한 핵심 개념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면서도 심화·확장되게 구성하는 방안이다. 연주, 창작, 감상이라는 영역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설정할 때, 뚜렷한 구분 없이 ‘동사’ 표기만 달리하기 보다는 역량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핵심 아이디어를 설정하고, 핵심

아이디어의 이해를 위한 세부 영역 활동은 교사가 현장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더불어, 교과 간 융합과 연계를 고려한다면 정체성 탐색에서 공동체까지 흘러가는 초학문적 주제 아래 구성하는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환경 문제나 시민성 등 새롭게 주목받는 초학문적 이슈들과 핵심 아이디어와의 연결성을 고려해볼만 하다.

본 연구는 현행 교육과정을 다시 바라보며 주요 용어들의 본래의 취지와 의미 등을 고찰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차기 교육과정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논의를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나, 개발 과정 중이기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몇 가지 방향들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핵심 개념’ 및 ‘핵심 아이디어’의 의미와 역할이 재고되어 현장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 C. Ministry of Education (2018). *Curriculum overview*, B. C. ministry of education. Retrieved May 15, 2022, from <http://curriculum.gov.bc.ca/curriculum/>
- Chang, H. J. (2020). A study on significance of layering the key concepts for social studies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7(2), 83-122.
- Choen, G. R. (2017). The Core concept of the Korean Language Arts. *Journal of Cheon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63, 41-65.
- Choi, E. A. (2020). Music curriculum in 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imary years programme. *Korea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4), 271-292.
- Chung, H. S. (2016). Critical review of the key concept-centered content system of the 2015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with a focus o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4(3), 29-50.
- Ju, D. C. (2019).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recent German curricula for music clas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4), 223-251.
- Kim, E. J. (2020). Analysis of Hierarchy of 'music elements and concepts' in elementary music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2015.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3(2), 127-155.
- Kim, J. H. (2019). Analysis of subject competencies reflected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 of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Korea Journ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1), 33-51.
- Kim, J. H., Kim, M. K., Yoo, E. J., Cha, J. I., & Han, K. Y. (2021). *Analysis of students' understanding of key concepts for each subject and explor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Jinchu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G. W., & Jung, Y. G. (2015). A reflective review on constitution of content system in 2015 revised subject curriculum: Focused on key concept, generalized knowledge, and skill.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6), 597-622.
- Lee, K. K., & Hong, H. G. (2015). Analysis on the meaning change of the term 'core concept'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 1-30.
- Ministry of Education (2015a). *Overview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No. 2015-80.
- _____ (2015b). *Music Curriculum*. No. 2015-74.
- _____ (2021a). *2022 revised overview draft of curriculum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_____ (2021b). *Researchers' 2nd Workshop Data for Curriculum Revision in 2022*. Retrieved May 15, 2022, from https://m.cafe.daum.net/_attachefileview?grpcode=dulsai&url=https://t1.daumcdn.net/cafeatta_ch/
- Ohn, J. D., Park, S. J., Byun, Y. I., Ann, N., Yoo, S. J., & Jung, N. R. (2018). *Understanding by design, Thoery meets practice*. Seoul: Salimteo.
- Ohn, J. D., & Paik, N. J. (2021). Exploration of the ways to improve alignment between content and standards in the big idea.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9(1), 93-122.
- Ohn, J. D., Kim, K. J., Park, H. K., Hong, E. S., & Hwang, G. H. (2015). *2015 Revised curriculum commentary (elementary school) development research*.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Park, J. H. (2022). The draft of new music curriculum. Open discussion source (2022. April. 22).
- Park, J. H. & Kim, J. H. (2021a). Exploring the composition of new music curriculum according to the direction(draft) of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in 2022.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3), 57-77.
- Park, J. H., & Kim, J. H. (2021b). Comparative analysis of music curriculum: Focusing

- on USA,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Singapore, Germany, France, and Finland.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4), 71-92.
- Ryu, J. Y. (2020a). A study on the designing and using of 'big ideas' in the national art curriculum -focused on the analysis of visual arts curriculum in BC, Canada-. *Studies in Art Education*, 62, 123-154.
- _____ (2020b). Critical review on the key Concepts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art curriculum. *The Teaching of Plastic Arts*, 75, 111-135.
- Seo, Y. J. (2019). Exploring ways to utilize 'big ideas' 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54(1), 71-106.
- Yang, S. Y. (2019). Description of achievement standards for 2009 and 2015 revised elementary school music curriculum.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1), 1013-1033.
- Yeom, N. R. (2016). A comparative study of language art key concept.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28, 195-213.
- Wiggins, G., & McTighe, J. (2005). *Understanding by design*. VA:ASCD.
- _____ (2005a). *Understanding by design*. Theory and practice of backward design for understanding by design: Class innovation (Handbook). Seoul: Hakjisa.
- _____ (2005b). *Understanding by design*. Theory and practice of backward design for understanding by design: Classinnovation (Theory). Seoul: Hakjisa.
- Wright, S. (2017). *PYP music scope and sequence model*. PYP music scope & sequence model. Retrieved April 16, 2022, from <http://wrightstuffmusic.com/wp-content/uploads/2017/08/PYP-Music-Scope-Sequence-Model.pdf>